

# 2022년 제1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일시 : 2022. 8. 26.(금) 10시30분  
장소 : 북구의회 제1회의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 2022년도 북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일 시	2022. 8. 26.(금) 10:30	장 소	북구의회 제1회의실
출석위원	7명(전원 참석)		
회의진행 순 서	1. 위원장 선임 2. 부위원장장 선임 3. 회의안건 심사		

(10시35분 개회)

○간사 ○○○ 오늘 회의가 일반 형식을 벗어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선임하기까지는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1. 위원장 선임

○간사 ○○○ 그럼 회의를 진행해 주실 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자유롭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경험이 많고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간사 ○○○ ○○○위원님과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저 역시도 재위촉 대상자 중에서 우리 ○○○위원님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을 추천하신 분이 많으셔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까?

(「예」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은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장 자리로 이동)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반갑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오늘 참석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회의진행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 부위원장 선임

○간사 ○○○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 2019년도에 저하고 같이 심의를 했던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 예.

○간사 ○○○ 그러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 두 번째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재위축인데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제대로 된 민간위원으로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2022년 부산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승락해 주시고 이렇게 회의에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북구의회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요구서 내용은 붙임 서류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일부 중복되므로 계획서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출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의출장 계획서, 첫 번째 출장개요입니다. 출장목적은 지방자치시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경험함으로써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선진 의정활동을 위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도시기반시설 및 복지, 문화, 관광 인프라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장동기 및 내용으로는 핀란드, 노르웨이의 도시재생시설, 복지시설 등 견학으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생태주거지역, 관광자원 활용 우수 사례,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 건축물 등 현장 시찰로 우리 구 접목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출장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5박 8일간입니다. 출장국은 핀란드, 노르웨이 2개국입니다. 출장자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열세 분과 수행직원 세 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출장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차 10월 6일 김해공항에서 집결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고 핀에어항공을 이용하여 오후 9시 45분 헬싱키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비행 시간은 13시간 45분이며 기내에서 숙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일차 10월 7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에 헬싱키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일 헬싱키에서 오전에 공식 방문으로 칼라사타마스마트시티 일정, 오후 공식 방문으로 헬싱키 대학교, 헬싱키 국립도서관 등을 소화할 예정이며 문화탐방으로 수오멘린나 요새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3일차 10월 8일, 현장 탐방으로 에코비키, 마켓 광장, 원로원 광장, 우스펜스키사원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며 오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로 이동합니다. 비행 시간은 40분입니다. 4일차 10월 9일은 오슬로 현지 일요일로써 현장 탐방으로 칼요한의거리, 오르웨이 왕궁, 오슬로 대성당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5일차 10월 10일은 게일로, 플럼, 구드방겐에서 플롬라인열차, 송네피요르드 등 현장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6일차 10월 11일은 오전에 구드방겐에서 오슬로로 이동하여 오후에 도심재생 사례인 피오르드 시티 프로젝트 주요 현장인 오페라 하우스를 공식 방문하고 노란디아에서 운영하는 오슬로 노인복지시설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7일차 10월 11일은 오슬로에서 헬싱키로 이동하여 헬싱키 공항에서 핀에어 항공을 이용하여 오후 5시 30분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비행 시간은 11시 30분이며 기내에서 숙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8일차 10월 12일 오전 11시 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김해공항으로 이동하여 김해공항에서 해산하는 일정입니다. 이상의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공원, 도시재생, 환경 등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문 도시

및 기관에 대한 업무 내용에 대해 사전 자료 수집 및 조사, 질문 사항 등을 정리하고 방문 후에는 시사점과 논의 사항, 제안 사항 등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출장경비입니다. 총 소요경비는 5,821만 7,000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여비는 5박 8일로 산출하였으며 초과 되는 경비는 개인 부담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첫 번째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의정활동 방향 수립입니다. 두 번째 도시 기반시설 및 복지, 문화, 관광 인프라 등에 대한 분야별 우수사례 추진 및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정책 제안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강화로 성숙하고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정활동 전문성 함양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북구의회에서 공무국외 출장지로 계획하는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는 세계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입니다. 개인당 100만 원 가량의 자비를 부과하면서까지 2022년 전 세계 삶의 질 지수 4위인 핀란드하고 10위인 노르웨이를 의원님들께서 선택하신 것은 선진 마인드 함양과 선진 눈높이 향상을 위한 의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3.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

○위원장 ○○○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 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된 심사기준표 및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여 토론을 거친 후 위원님 개개인의 심사 의견을 취합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 이번에 출장 가시는 의원님들이 전원인가요?

○간사 ○○○ 의원 열네 분이 전원이고 한 분은 개인 사정으로, 자녀분 결혼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열세 분이 참여합니다.

○부위원장 ○○○ 제가 이 질문을 일단 드린 이유는 조례 제8조1항2호를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한 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취지는 뭡까요? 전원이 갈 수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은 전원이 가는 거에 해당 되지 않습니까?

○간사 ○○○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분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총회를 하시고 전원이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원님 한 분이 자녀분 결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 그러니까 여기 조례는 전원이 갈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한다고, 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조례 취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보는 거고요. 일단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무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의원님이 안 계셔서 대신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국외 출장 계획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내용들 하고 연결했을 때.

○간사 ○○○ 북구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 그렇죠.

○간사 ○○○ 집행부 감시 역할, 감독 그리고 조례 제정,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것 외 기초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실질적 개선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린 것 외, 어쨌든 제가 두 번째 이제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계획과 목적이 집행부의 어떤 지금 정책 방향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어떤 조례 제개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단순히 민원을 듣고 얘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어떤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국외연수를 연계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는 지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사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7월 1일 임명되시고 이제 개원한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기보다도, 국외출장을 나가는 이유는 현지의 사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 위한, 그리고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경험할 수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연수를 통해서 체험한 것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각종 안건 및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의원연구단체라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로 활용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선진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 지금 보면 심사위원회의 설치가 있고 저희가 심의할 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고 돼 있거든요. 1호에 보면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인데요.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몸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관광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서유럽을 한번 다녀오셨고 아시아 갔다 오셨고 안 가신, 이번에 북유럽을 가시고, 제가 왜 이 계획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정말 제대로 짜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핵심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의회 취임하신 지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전혀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조례에 대해서 어떤 걸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제개정을 하고 북구에 필요한 어떤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또는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조례가 필요한지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거기에 연구가 안 돼 있는데 당장 이 걸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자기가 어떤 조례 개정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선진적인 것을 체험하고 거기서 또 학습하고 또는 생각을 가져서 행정의 어떤 집행부의 의견에 어떤 심의 의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든지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구민들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가서가지고 무엇을 체험하겠냐는 거죠. 그거 자비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의정연구회에서. 지금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뭘니까?

○간사 ○○○ 구비입니다.

○부위원장 ○○○ 지금 북구 예산 자립도가 16개 지자체에서 몇 위하고 있습니까?

○간사 ○○○ 자립도가 몇 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 지금 여기 구청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다?

○간사 ○○○ 제가 20년을 했는데 몇 위인지는,

○부위원장 ○○○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되세요 지금. 최하위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그런 현실에서 6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구비를 가지고 지금 코로나 지원금도 북구만 재정자립도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가시겠다고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민간 위원들의 입장에서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 가야 되는 적합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한 체험탐방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고서도 두 차례나 다 봤습니다. 보고서를 지금 다른 분 위원님들 검토를 하셨겠지만 단순 그냥 기행문 소감. 그리고 과거 보고서가 어떻게 북구에서 정책과 조례 제개정에 결합이 되었고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간사 ○○○○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전에 공무국외 갔다오신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5분 자유 발언하실 때도 그런 거를 접목하고 외국 사례에 대해서도 넣어서 우리 구에서 할 거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조례 심사나 예산 심사를 할 때 외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부분들을 녹여서 의견도 제시하시고 반영을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효과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 지금 가시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공식 방문 행사 일정이 잡혀 있는 거 저도 찾아보면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 한국에 영상이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제가 볼 때 취지들은 좋아요. 저도 북구 주민이긴 한데요. 북구와 전혀 상관없는, 시정에서 가거나, 이거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갈 수 있는 거지 기초의원이 여기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나머지 80~90% 좋게 봐줘도 그냥 단순 관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 정말 매섭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탐방 계획을 잡았거나 혹은 실제로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간사 ○○○○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16개 구군 중에 계획하는 데가 7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정입니다.

○○○○○위원 지금 코로나가 완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0월이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임기 개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 안 되신 의원님들이 10월 초에 나가는 것은 업무 파악의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또 코로나 관계에서 너무 앞서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을 좀 늦추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 지금 10월 초로 계획된 저희 일정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달 되면 2차 정례회가 시작이 되고 10월에는 날씨도 괜찮고 해서, 보통 연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추면 올해 예산으로 갈 수는 없고요 늦출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계획 외에는 늦추거나 할 수 있는 일정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그리고 지금 탐방 기관에서도 대학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코스가 되어 있는데 북구에 대학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북구 자체를 대학 도시라고 하기에는 곤란한데 저는 연관성이 없는 대학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어



면 연관성이 있는지?

○간사 ○○○○ 그곳을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북구에는 도서관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학에 가면 도서관이 있고요 그 대학 앞에 가면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위치라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할 분 있습니까?

○○○○위원 저는 심사평가표 심사기준 여섯 번째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계획서에는 이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획서 작성한 8월 17일 현재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만 명 정도 되고 노르웨이는 169명 하루 확진자 수가, 핀란드에는 지금 통계가 없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여행경보 안내단계로 봤을 때도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5단계 중에서 1단계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이 2단계입니다. 2단계보다 더 괜찮은 1단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입국 제한 해제 국가 51개 국가에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 입국 제한하는 것도 노르웨이는 별도로 백신접종증명서라든지 음성확인증이 필요가 없고요 핀란드는 백신접종증명서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 조금 우려사항은 있지만 이거 가지고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나라를 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시원하게 대답하시면 좋겠고 아까 예산문제 물어봤을 때 애매한 답변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9대의회 열네 분 중에서 대부분이 초선 의원이시고 재선 이상이 다섯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저 역시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먼저 업무를 다 파악하고 나서 외국을 나가느냐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라도 외국에 가서 문물을 한번 접하느냐 그런 인식의 문제인데. 만일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데 관련 기관하고 이미, 외국 같은 데 한 번 예약을 하면 절대 변경이 안 되던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간사 ○○○○ 지금 어느 정도 컨택은 된 상태고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예천군의회에서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가시게 되면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진짜 외국에 가서 많은 걸 배워왔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약에 못 가신다면 취소를 하시든지 좀 더 명확하게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 잘 알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혹시 2019년도에 외국에 다녀오셨던데 그 전이라도 외국에 다녀와서 우리 구정에 접목한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몇 번 다녀오셨잖아요. 그것을 구정에 접목한 사례, 혹시 의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잘 모르시겠죠. 아십니까?

○간사 ○○○○ 제가 그 부분은 필요하면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 하여튼 타구에서 간다니까 우리도 가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가게 되면 우리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가는 만큼 좀 야무지게 배우고 오시라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서로 보니까 한 분씩 해서 제 차례가 된 거 같은데 저도 ○○○○위원님하고 굉장히 의견이 비슷한데요. 이번에 핀란드하고 노르웨이 북유럽이 선정이 되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간사 ○○○○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가지고 방문할 국가 그다음에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정해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우리가 보건이면 보건, 복지면 복지, 문화 관광 이 테마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적합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도 있거든요. 모든 계획을 함에 있어서 후보 나라들이 선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방문지도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근거나 내용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 방문지를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을 갖춰놓는 게,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인식하거나

아니면 외부인이 보기에 보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외유가 아닌 정말 합목적적인 연수일 것이다가 되겠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조금 마련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보내주신 연수 사례를 보니까,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낙후된 그런 시설을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단순 그냥 느낌을 나열한 아주 무성의하고 부적절한 그런 보고 내용들도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게 된다면 의원님들 담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관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 연수목적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수 사례를 실정에 맞게 보완 적용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를 조금 구체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연수국가 및 기관 선정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계획서 상에 조금 보완을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서 상에 있는 업무분장표대로 연수 가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서 연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연수 사례의 우리 규정 접목 사례는 제가 사실은 조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게 연수 때문에 어떤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또 의견 있으시면,

○○○○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 이런 게 많이 보도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셔서 뭔가 좀 현지 직원하고 불미스러운 일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도 사실 좀 종종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가시더라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출장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서 볼 수가 있나요?

○간사 ○○○○ 예. 출장 결과보고서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처음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방문지를 보면 누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노르웨이 왕궁, 오슬로 대성당 이런 거는 사실 국가 단위에 한 국가의 하나의 시설이잖아요. 이걸 보고 온다고 해서 구 의회 수준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문화유산을. 그리고 송네피요르드 이런 것

도 천혜의 자연자원인데 이걸 사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사 ○○○○ 참고적으로 저도 해외 연수를 한번 가게 되면 어떤 특정한 시설을 방문계획을 하고 갑니다. 그것은 공식 방문이고 그 외에 관광지 위주로 한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일정이 7일간인데 일요일이 끼여 있으면 공식 방문할 수 없는 날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내를 돌아본다거나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관광지가 우리 구에 없어서 그것보다도 시내를 보다 보면 휴지통 하나, 정류장을 하나,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하고 다른 특색 있는 새로운 거. 그다음에 어떤 하천이나 이런 깨끗함이라든지 이런 걸 보통 보고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예 ○○○○위원님,

○부위원장 ○○○○ 12시까지 어차피 식사 시간이 있으시니 조금 대안이나 의견들을, 저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계속 매년 반복되도록 잘 보고 이렇게 해서 일단 결정됐으니 이번에 가셔야 된다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광역협의회 조례 그리고 구 조례도 저희가 매년 검토를 합니다. 발의가 되거나 개정된 거. 할 일이 없이 그 왜 보겠습니까? 잘하신 의원들을 격려하고 또는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구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보고 격려도 해보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특히 구 조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부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열악합니다. 그만큼 어떤 전문적인 의원들의 연구 학습이라든지 방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례로 말씀드린 건데 줄 상이 없어서 너무나 고민을 해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죠. 그것과 필요한 연수를 정말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제가 어떤 위원회 참석하고 느끼고 체감하는 게 북구는 상당히 이렇게 뭔가 어떤 행정의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자치나 분권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요. 너무나 절차 중심이고 그냥 패스하고 대충. 형식적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위원회도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고 끝내고. 이것도 어떤 체감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치단체 구마다. 그래서 다른 해운대구나 이런 데 공무국외연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안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기본적인 큰 것들은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가 2회째 보면

서 전혀 개선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다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매년 똑같은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9대 의회가 또 첫 시작이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타성적으로 처음 가신 분들은 다음에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공무국외연수 몇 번 가게 돼 있습니까 임기 동안?

○간사 ○○○○ 매년 갑니다. 네 번 갑니다.

○부위원장 ○○○○ 지난 8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두 번밖에 못 가신 거예요. 그것도 가시려고 가시려고 틈을 보시다가 못 가신 거예요. 매번 올해 같이 이렇게 돼서 풀리면 이런 방식으로 6천만 원씩 얼마씩 예산을 그냥 구비를 쓰시는 거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거를 의정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집행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위해서 보완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칼라사타마 스마트 시티, 에코 비키 이런 거, 에코 비키는 에코델타시티 지금 사상구에서 가야 됩니다 현장 보고. 북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정책 방향이 없는데 지금 자치단체장도 내놓지도 않은데 무엇을 위해서 가고 매년 매년 기본적인 물가 상승 대비하면 6천만 원 이상 들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낭비해서 처음부터 가신다는 게 저는 정말 안일한 생각이고 이번에는, 유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장 일정 잡고 이렇게 세미나가 되고 디테일한 뭐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의회 사례를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해서 그 사례 도시를 정말 연구를 미리 해서 거기를 집중해서 가서 관계자들 만나서 담당 세미나도 하고 어떤 장점과 이해관계 이런 것들 다 조정하고 들어와도 이게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하나 제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파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델들을 우리 지역에서 그냥 고민하시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해운대구라든지 잘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곳에 사례들을 좀 보고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번에 당부드리고 싶고 특히 9대 첫 해이기 때문에 공무국외 출장이잖아요 여행이 아니고. 그냥 이런 계획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제가 정말 강력히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내부 위원 한 명도 없이 전원 100% 외부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조례에는 2/3 이상 위촉하도록 권고는 돼 있지만 우리는 100% 위촉을 해서 좀 내실 있게 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내실 있게 보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더 의견 없으신가요? 세월이 흐르고 또 이런 공무국외출장이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매섭게 질의를 해주시고 의회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정말 다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더 깊이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평가표에 심사항목의 적정여부와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시고 종합의견에는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중 택일하여 ○표로 의견 표시 후 간사에게 심사평가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평가표 작성 완료 후)

그럼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인, 반대 2인입니다. 찬성 중 수정가결 2표는 계획서 보완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 2022년 제1차,

○부위원장 ○○○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수정가결은 어떻게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다시 재심의를 하든지 그냥 수정해서 올려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간사 ○○○ 수정가결이라는 부분은 일단 계획서 상에는 가결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보완하는 것으로, 별도 심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심의를 하는 것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이 결국 그다음에 적용이 되겠네요.

○간사 ○○○ 위원님들 아까 회의 중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책도 하셨고 조금 보완할 부분도 저희들 좀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 초에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또 한번 심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보완을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좀 혼돈하실 수 있는 게 이 수정가결이라는 의미가 보통은 수정한 이후에 다시 가결하겠다. 위원회가 있는 절차가 있어서 조건부로 수정가결을 해 주시는 건데 그냥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서 수정을 했다고 해서 어떤 수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건 심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무시되는 거예요.

○○○○위원 저희 논문 쪽을 보면 수정후 재게재가 있고 수정후 재심의를

있거든요. 그 부분 항목이 추가되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이 들고,

○위원장 ○○○ 그러면 수정 후 재심의를 한번 거치는 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 재심의를 하셔야죠 당연히 가결이 제시니까.

○○○○위원 원래 수정가결은 수정 후 게재와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 지금 수정가결 의사표시를 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위원장 ○○○ 두 분 있습니다.

○○○○위원 두 분입니까? 그러면 찬성이 세 분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요.

○○○○위원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수정을 해서 또 다시 재심의를 한다 그러면 현재 원론적으로는 전부 가결된 상태잖아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가결은 원칙적으로는 가결이 된 상태란 말입니다.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목을 수정 후 재심의를 하나 더 넣는 게 낫지 않느냐. 가결은 가결된 걸로 통과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는 그런 거라서,

○간사 ○○○ 오늘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의표에 재심의 부분을 반드시 표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해주시죠. 왜냐하면 결정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정가결이면 이게 별 문제는 아닙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런데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가결을 가결로 하실건지 위원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결정을 해야지. 사실 수정 통과 이렇게 하면 그 수정의 내용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보통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통과하면 위원회에서 된 거 수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또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수정하고 변경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를 했는데 수정 내용이 어떤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됐는지 반영이 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결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간사 ○○○ 그래서 지금 수정가결도 가결인데 일단, 수정의견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위원 의견을 내신 분들이 어떤 부분을 수정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요청 없이 수정가결 하시지는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그분한테 여쭙보시라고.

○간사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

데,

○부위원장 ○○○ 개인적으로 요청해야 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위원회 전체에서,

○간사 ○○○ 의견 내신 분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전 위원들한테 수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저는 이것의 결정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가결이 아니고요 전제의 논점은 수정 후 가결이, 지금 반대도 두 표 있고 찬성이 아까 세 표인데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저희가 정족수 2/3가 돼야 이게 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얼마나 제대로 됐느냐를 보고 이게 다시 심의나 의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 위원님들 생각이 ○○○위원님과 같은지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위원 제가 수정가결을 했는데 저희들 학교에서 논문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결인데 그 전제조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아까 질의한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과 그다음에 출장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명확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타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제조건은 일단은 가결을 전제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논문을 생각을 하면 수정 후 통과라는 것은 ‘이렇게 수정을 하면 통과를 해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가결을 전제로 해서,

○○○○위원 그래서 수정 후 재심의하는 방법을 하나 더 넣은 게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간사 ○○○ 사실 이번에 이 사항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재심의 부분을 꼭 넣어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 같고 조금 시간을 더 갖고 심의할 시간도 주고 그랬으면 심의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 일단은 수정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가결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려주십시오

○간사 ○○○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가결됐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가결된 것이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한테 어떠한 부분을 수정했다고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 예. 지금 의회 의원님들에게 공무국외출장 이런 부분에 심사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서 전달이 잘 되어서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북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  
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